

김옥임 교수가 쓰는 지족의 경제학 <6>

도덕적 감정의 면에서 생각을 다듬은 스미스는, 그것을 떠받치는 사회적 틀이 필요하다는 것을 호소했다. 국가가 그 권력에 의해 지탱, 유지해야만 할 틀로서의 '정의의 원칙'을 짚었고 그 바탕위에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활동이 행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정의의 원칙이란 ①개인의 생명과 인격의 보호 ②재산의 안전 ③권리의 보전, 이 셋이다. 이 틀 가운데서 시민사회가 바라는 것은 개인의 건강, 재산, 신분, 명성 등이다. 이것들은 각각 이기적 본능과 결부되고 있다. 그 위에 전개되는 경제의 세계는 '편의의 원칙'이 지배하고 있다. 요컨대, 사리(私利)의 추구는 틀림없이 도덕적으로는 저차원이지만, '정의의 원칙'의 테두리 내에서 행해지는 것이라면 시인되어, 도덕적 세계의 일부를 이룬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사리를 추구하는 경제인(homo economicus)은 덕 있는 선비로 부를 수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전제를 바탕으로, 아담 스미스는 다음과 같은 주장을 계속했다.

"모든 사람은 정의의 법을 범하지 않는 한, 각인각색의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 자신의 노동과 자본을 다른 어떤 사람 또는 다른 계급 사람의 그것과 경쟁시키려고 해도 무방하다."

스미스에게는 자연 조화에 대한 신앙과 신실시민 및 노동자 계급에 대한 과대한 신뢰, 평가가 있었다. 그 평가가 그들의 진전하는 부(wealth)에 대한 길은 그대로 '덕으로의 길'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다. 유감스럽지만, 스미스가 전제로 한 신뢰 혹은 평가야말로 스미스 경제학의 '속임' 현상을 일

관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한 마디 덧붙인다면, 위와 같은 낙관론을 지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스미스는 교육도 인간의 자유경쟁에 맡겨야만 할 것을 설렘했지만, 경쟁을 위한 경쟁과정에 노동자가 타락할 가능성을 염려해 교육에 관해 서만은 정부에 의한 민중(공)교육을 하는 쪽이 바람직한 것으로 주장했던 것이다.

'속임'과 하는 것은 그다지 엉뚱한 단어는 아니지만, 실은 스미스 자신이 사용한 말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여 설명해보기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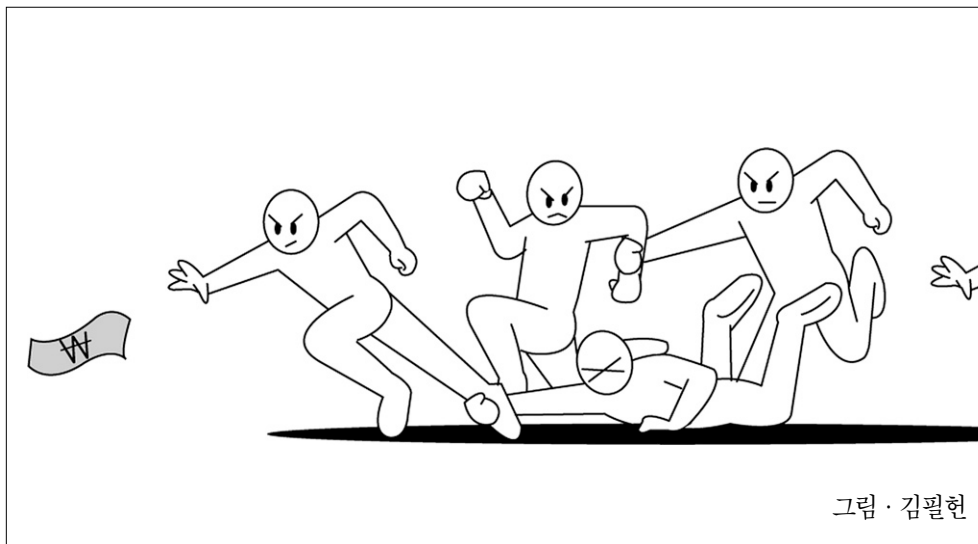
스미스는 경제가 발전하여 자본주의가 융성해나가기 위해서는 분업과 경쟁이 불가결한 것이라고 보고, 이 두 가지 속성에 주목했다. 그런데 그 분업도, 경쟁도 다 같이 인간을 왜곡시켜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 의미에서는 분업과 경쟁은 '불행의 종(鐘)'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어쩌서 스미스는 '불행의 종'인 분업과 경쟁에 그토록 가치를 부여한 것일까?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스미스의 '행복관'을 알지 않으면 안된다. 그가 말하는 행복이란 "건강하고 빛이 없이 양심의 가책을 받는 일이 없다"고 하는 생활이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은 아니다. 누구나 노력한다면 이와 같은 행복이란 얻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때문에 사람들은 이 목적, 즉 빛이 없는 생활을 목표로 해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으로 재산이나 지위 등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목적과 수단의 역전현상이 일어나고 만다. 재산이나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쟁은 행복한 삶 위한 수단일뿐 목적 안돼

'건강하고 빛 없는 삶' 스미스의 '행복관' 빛나



타인과 경쟁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경쟁은 불가피한 것이다. 그런데, 한번 경쟁하기 시작하면 도중에 그만둘 수가 없다. 무한히 경쟁을 지속해 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결국 경쟁을 위한 경쟁으로 휘말려 버려 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행복이라고 하는 목적은 어딘가로 사라져 버리고 수단인 경쟁이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다.

이와 같은 현상을, 스미스는 "자연이 사람을 속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자연이 사람을 속임에 따라 상호간의 경쟁이 일어나고, 그것을 통해 사회가 발전되어 간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경쟁이 사회의 부

(wealth)를 균형적으로 증가시켜 가는 것으로 믿고 있었던 것이다.

스미스가 말하는 행복의 구체적인 이미지는, 당시 많은 사람들의 생활현실에 호소하는 것이었으리라 생각된다. 아마도 스미스가 살았던 그 시대에 주위를 둘러보면 부채를 안고 살아가는 서민이나 위생상태가 열악해 건강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빈민층을 적지 않게 봤을 것이다. 전체의 부가 커져서 풍요롭게 된다면, 필경 행복한 사회가 탄생될 것이라고 스미스는 생각했음에 틀림없다. 자연이 사람들을 속여 경쟁을 부채질하고 사회의 부를 풍요롭게 해

것을 선의에 가득 찬 기본으로 기대했음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따라서 사회의 부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스미스는 '경쟁의 속임'을 긍정한 것이다.

스미스는 또 새로운 경제인의 도덕성을 신뢰하고 있었고 노동자는 정부에서 교육한다면 인간적인 향상과 사회적 도덕성을 도모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낙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경쟁에 의한 여러 가지 폐해는 제거될 것으로 믿고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자유경쟁사상에서 속이기는 어차피 속이기가이다. 사람들은 언젠가는 정신적 행복을 잃어버리고 물질적 경쟁 속으로만 치달게 된다. 돈(money)이면 무엇이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기에 사람들은 그 '돈'하며 결국 배금주의에 빠져버리는 것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지족(知足), 곧 '만족을 안다'고 하는 발상과는 다소 거리가 먼 서구 자본주의 사리(私利)에서는 시장 경쟁에 제동을 거는 것은 당초부터 어려웠다. 따라서 영미문명권이 주도해온 과도한 시장경쟁의 속임현상으로 인해 최근 미국 월가 금융시장의 파탄이 크게 세계경제에 영향을 주고 있음에도, 그것을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결코 쉬워 보이지 않는다.

스미스가 '자연이 사람을 속였다'고 한 경쟁의 영향은, 그 자신 개인의 행복과 국부의 증진을 위해 '좋은 일이다'고 평가했지만, 그러한 낙관론이 글로벌 자본주의의 사회로 진보하여 오늘날에 이르러까지 인간 존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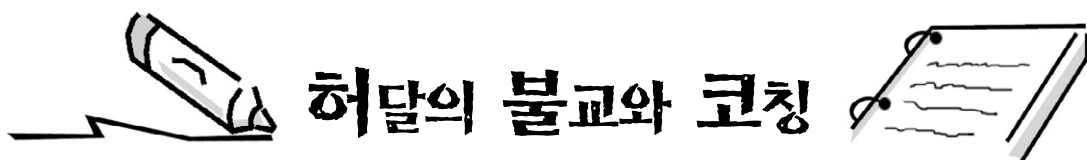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⑥ 코칭의 철학

'절대로 답을 주지 말라'는 것이 코칭의 철학이라면 좀 우습게 들릴지 모른다. 그러나 바꾸어 말하면 이는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원칙이 된다.

첫째, 모든 사람에게는 무한한 잠재력이 있다. 둘째, 사람들에게 필요한 해답은 그 사람 안에 있다. 셋째, 해답을 효과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파트너(코치)가 필요하다.

첫 회에서 소개한 것처럼 코칭은 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줌으로써 스스로 답을 찾아내게 하는 프로세스란 뜻이다. 인간의 잠재력은 무한하다는 것인데, 실은 인간에게 내재한 능력이라기보다는 우주에 편만한 지식과 능력을 가져온다는 설도 있다. 다만 어떻게 이를 가져올 것인가 문제인데, 요즘 세간에 널리 읽혀진 <시크릿>이라는 책에서는 '끌어당김(Attraction)의 법칙'이라고도 하고, 또 훨씬 전에 루퍼트 쉘드레이크(Rupert Sheldrake)라는 진보생물학자가 '형태장에 대한 공명 현상(Morphogenetic Resonance)'이라고 부르기도 한 것이 그것이다. 즉 간접히 원하고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면 어느새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니, 불자의 눈으로 보면 "원(願)을 세우



내면의 잠재력 끌어내줄 코치가 필요

면 이미 이루어졌다"는 부처의 가르침을 다른 이름을 빌어 재조명하고 있을 뿐.

두 번째 답, '그 사람 안에 있다'는 말은 다소 설명이 필요하다. 이것은 바꾸어 말하면 답이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자기 것이 되기까지는 해답으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즉, 이른바 '아하 모멘트(Aha! Moment)'를 지나야 한다는 것이다. "아하, 이걸 내가 왜 못 생각했지?" 또는 "아하! 이걸 내가 알고 있던 얘기잖아?" 하는 앎(Awareness)의 단계를 지난 뒤 비로소 문제에 대한 진정한 해답이 성립된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것은 코치가 아닌 고객이 해주었으면 더 좋을 법한 이야기지만, 답을 효과적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누군가 도와주

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와주는 사람의 능력이 뛰어나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고객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역할만 할 수 있다면 된다는 것이니, 이것은 마치 헛노는 펌프에 부어 넣을 깨끗한 마중물이 없을 때에는 비록 개수틀이라도 어쩔 수 없이 가려 부어야 하는 상황에 비유하면 좋을 듯 하다. 코칭이 마중물이라는 이야기는 아마 이런 관점에서 비롯되었을 것이다.

코칭은 아무 때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코칭의 환경이 갖추어졌을 때 일어난다. 바탕이 되는 것은 코치와 고객 간의 신뢰인데, 이를 위하여 코치는 좋은 품성을 갖추도록 부단히 노력하며, 또 코칭에 필요한 기술을 연마한다. 코칭의 장(場)에 이르러서는 고객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는데, 고

객의 리더십 또는 리더 패러다임 평가 결과 등을 함께 다루며 신뢰성의 재구축, 커뮤니케이션의 향상, '승-승(Win-Win)'의 각본 쓰기 등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낸다. 이때 고객과 코치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여야 하며, 고객이 마음 놓고 자신의 내면을 들어내어 보일 수 있도록 편안한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

어미 날짐승이 품은 수정란 하나, 이 달린 생명체의 잠재력은 무엇일까? 그리고 그 잠재력은 누구의 주도하에 누구의 도움을 받아 생명으로 탄생하는가?

선가(禪家)에서 쓰는 졸락동시(倅啄同時)라는 말이 의미 심장하다. '졸(啄)' '탁(啄)' 모두 날 짐승의 부리를 찌는 한자어. 줄은 어린 병아리의 부리, 탁은 어미의 부리를 뜻한다고 하며 동사로 쓰면 부리로 찌는 행위를 말한다.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통해 그 달린 생명체 내에서 수십억 년에 걸친 생명진화의 과정을 압축진화하고 나면 마침내 병아리의 형태를 갖추어 부리를 알 껍질의 내벽에 찌는 자세로 받쳐대게 되는데, 이때를 놓치지 않고 밖의 어미가 정확히 그 맞던 자리를 쏘아야 껍질이 깨어지며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선가에서는 진여(眞如)의 안팎 혼수에 의해 무명 칠통(漆桶)이 깨어지는 깨달음의 현상은 은유하는 말로 쓰이지만, 고객의 주도 하에 코치의 도움으로 고객 내면에 있는 잠재력이 현실화 되는 코칭의 순간(Moment of Coaching)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겠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과일의 왕 두리안

제일 맛이 좋은 시기에 수확하여 들여왔습니다.

두개 6.5KG 이상 **55,000** 원
한박스 14KG 이상 **100,000** 원

Sale!

주문하시면 즉시 택배로 배송되며
받아보실 때는 영하 40도로 급냉해 보관된
두리안이 딱기 좋은 상태로 배송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주문하셔도 됩니다. 한글로 두리안샵
www.durianshop.com

판매 및 문의
불자가 운영합니다
대표전화 ☎ 031-882-1357/031-797-1357
Fax 031-881-1350 긴급전화 : 011-474-1345
입금구좌 : 농협 100023-56-156761(조명숙)

매일경제신문 인체경영학 연재
이강욱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다이어트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일상 생활하며, 공복감 없이 2주에 5~8kg 뺄 수 있다.

95%의 다이어트가 실패로 끝나는 현실에서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은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 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감량이 된다는 20년간의 임상 경험!

"여성이 살뺀다가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뺀다가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의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져, 건강체질로 바꾸는 발효원액 절식법

풍동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산업사회의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속에는 현대의학으로도 규명 못하는 노폐물이 장 속에는 이끼처럼 숙변이 쌓이고 관절 사이사이에 박히고 간에는 지방이 엉기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굳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 빼는 약을 먹거나 몰단식을 하여도 살은 빠지지만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해지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초록원 02)523-0708
www.chorokwon.com

한방(韓方)치료로

간경화, 간질

갑상선항진증, 결핵성 임파선염

백납, 뇌수종

산후풍, 수족냉증

불임, 갱년기(울화)병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 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90423-중-5041호

전자식 2종문 3종정보 특헌

불 전 함

움직이거나
덜문만 열어도
경내 전지역
경보상태

◆ 도난의 염려가 없는
사고 미연방지100%

◆ 돌발적인 정보로
침입자, 100% 도주

원록 법상

서원불교 북 043-647-2378, 011-467-1472